

## “도전과 나눔의 아산정신 배워갑니다”

글 김영곤 아산재단 복지사업팀 / 사진 송은지



만남의 장에 참석한 아산장학생 수가 많아 기념촬영은 세 번으로 나눠 진행됐다. 장학생들은 “장학금 지원만으로도 항상 고마움을 느끼는데 알찬 교육과 다양한 행사참여 기회를 제공해 주는 아산재단의 배려가 늘 고맙다”고 말했다.



곽병은 갈거리사랑촌 명예원장과 정진홍 울산대 석좌교수가 '나눔문화'와 '아산정신'에 대해 강의하는 모습(왼쪽부터).

“학과 실습도 미루고 참석했습니다. 만남의 장이 개최되는 오늘을 손꼽아 기다렸거든요.”

가뭄을 해소하는 반가운 장맛비가 대지를 적시던 7월 4일 아침, 서울은 물론 부산과 호남, 영남 등 전국에 거주하는 아산장학생들은 아침 일찍 고속버스와 기차를 타고 서울로 모여들었다.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강당에서 개최되는 '2016년 아산장학생 만남의 장'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아산장학생 만남의 장은 도전과 개척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고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재단을 세워 나라와 이웃에 헌신했던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의 정신을 체험하고, 장학생들끼리 친분을 다지기 위한 행사다. 특히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연사의 특강 등 유익한 내용으로 장학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 처음 만나 금세 친해진 장학생들

장학생들이 몰리면서 행사 시작 시간인 10시가 되자 250석의 강당은 어느덧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환영인사와 일정안내가 있는 후 첫 번째 순서는 아산장학생들의 모임인 '정담회' 임원들의 사회로 진행된 화합의 시간이었다.

행사를 진행한 이강산(고려대 사회체육학과4) 정담회 기획 부장은 “툼과 제리처럼 늘 다투던 관계는 물론 첫 소개팅 참석자들의 어색한 사이도 10년 사귀 친구로 만들 만큼 아주 친밀하고 끈끈한 프로그램만을 선별했다”며 자신감을 비쳤다.

가위바위보, 퀴즈 맞추기, 노래 부르기 등 정담회 임원들이 아심차게 준비한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어 처음의 서먹했던 분

위기는 눈 녹듯 사라지고 앞뒤에 앉은 장학생들과 금세 단짝친구가 되었다. 특히 노래 부르기 시간에는 최종 우승을 위해 장학생들이 댄스 배틀을 진행하며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다.

부산에서 참석한 은연지(한양대 약학과5) 장학생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재미있었다. 먼 곳에서 올라오며 처음 만난 장학생들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가 걱정되었는데 친교시간을 통해 금세 친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장학생들은 정주영 설립자와 아산재단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을 25분 동안 시청했다. 특히 영상에서 소개된 정주영 설립자의 다양한 사진과 각계 분야 지인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 책으로만 접했던 설립자의 삶과 가치관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오전 일정이 끝나고 정오부터는 점심으로 다양한 음식이 뷔페 형식으로 마련됐다. 스테이크와 새우요리, 간pong, 샌드위치, 파스타, 샐러드, 각종 케이크와 과일, 쿠키 등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메뉴로 차려진 점심식사에서 장학생들은 마음껏 식사를 즐겼다.

## “스스로 주인 되는 삶을 살자”

오후 1시부터 이어진 오후 일정의 첫 번째 순서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연사에게 우리 시대의 거인이었던 아산 정주영 설립자의 기업관과 삶의 철학 등 아산정신을 본격적으로 듣는 시간이었다. 강사로 나선 정진홍(79) 울산대 석좌교수는 부드럽고 인자한 표정이었지만 때로는 단호한 음성으로 아산정신을 들려주었다.





2016년 만남의 장에 참석한 장학생 250명은 친교의 시간과 특강 등을 통해 우정을 쌓고 아산장학생으로서의 자긍심을 키웠다.

정진홍 교수는 “대학생과 직장인 대상의 설문조사를 보면 현실이 힘들다고 대답한 사람이 다수였다. 물론 현실이 매우 고되고 힘들 수는 있지만 설립자가 살아계셨다면 아마 젊은이들에게 “너 자신을 보라. 뛰쳐나가라! 가출하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설립자께서 본(本)을 보여주신 것처럼 다른 것들과 부딪히고,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보고 삶의 주체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도전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설립자는 살아가는 데는 신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기보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사람인지에 대해 먼저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조언도 들려주었다.

주체가 되는 삶을 살라는 아산정신을 전한 정진홍 교수의 깊은 울림 때문이었는지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눈망울은 더욱 빛이 났으며, 입을 굳게 다물며 의지를 다지는 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안상범(단국대 토목공학과4) 학생은 “특강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면서 “특히 설립자처럼 늘 도전하는 청년이 되기 위해 어떻게 살고 어떤 다짐을 가져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서 2013년 아산상을 수상한 광병은(63) 갈거리사랑촌 명예원장이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 때 더욱 성숙해질 수 있다”는 주제로 ‘나눔문화’ 특강을 했다. 아산상은 나눔정신을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한평생 헌신한 개인이나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아산재단이 제정한 상으로 국내 사회복지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와 명성을 인정받고 있다.

광병은 명예원장은 “1 더하기 1은 단순한 2를 넘어 무한대로 발전해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만큼 아산장학생들도 다양한 나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산장학생들은 우리 사회에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에서 50시간의 봉사활동을 실



장학생들에게 청년창업 지원 등 주요 사업을 소개하는 이승복(왼쪽) 아산나눔재단 글로벌리더팀장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인 아산서원을 소개하는 김태영(오른쪽) 장학생.

시하는 만큼 봉사자로서의 자세와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는 뜻 깊은 강의였다.

전자영(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4) 학생은 “실제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회복지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하시는 박병은 원장님의 강의라 더욱 실감이 났다. 사회복지학과 학생으로서 힘든 이웃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근원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 “미래 개척하는 용기와 위안 얻었다”

다과를 즐기며 20분의 휴식을 취한 장학생들은 이어서 이승복(39) 아산나눔재단 글로벌리더팀장의 소개로 아산나눔재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2011년 설립된 아산나눔재단은 아산의 도전과 창조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이 정신이 발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부터 성인을 아우르는 기업가 정신 교육사업을 시작으로 사회혁신가를 육성하는 아카데미사업, 비영리기관을 지원하는 파트너십사업, 예비창업가를 발굴하여 창업 인프라를 제공하는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 배움과 소통의 장을 제공하며 청년 및 예비창업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마지막 순서는 아산서원에 대한 강의였다. 아산서원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다. 2014년 아산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며 제8기 아산서원 원생으로 활동 중인 김태영(한국해양대 조선기자재과4) 학생은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발표를 진행했다.

서혜림(한세대 경영학과3) 학생은 “막연하게 비영리기관에서 일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산나눔재단과 아산서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유익한 정보를 얻었다”고 말했다.

아침 10시부터 시작된 행사는 오후 4시 마지막 기념촬영을 끝으로 종료됐다. 이별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인지 장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고 전화번호를 교환했다.

임용호(세종대 건축공학과3) 학생은 “뜻 깊은 강의와 맛있는 식사, 기념품까지 모든 것을 다 갖춘 종합선물세트를 받은 기분”이라면서 “항상 아산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는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현(건국대 산업디자인학과3) 학생은 “장학금 지원만으로도 항상 아산재단에 고마움을 느끼는데 알찬 교육과 다양한 행사참여 기회를 제공해 주는 아산재단의 배려가 늘 고맙다”면서 거듭 감사인사를 전했다.

전국에서 모인 아산장학생들은 도전과 나눔, 개척의 아산정신을 가슴에 품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장학생들은 “청년 실업률이 높은 어려운 현실에서도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용기와 위안을 얻었다”면서 “서로의 꿈을 북돋우면서 아산장학생으로서 하나가 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원동력을 얻어서였을까, 집으로 향하는 장학생들의 발걸음이 더욱 당당하고 힘차 보였다. ☺